‘지역문화주권’ 인식 확산…‘환지본처’ 이어진다

성보유랑 聖寶流浪

⑦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보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공간을 장엄해 온 성보문화유산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문화주권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추진되며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가장 먼저 이전 소식을 알린 것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관내 야외정원에서 전시 중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을 경기도 여주시 고달사지로 현지 이관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등.

3만여 원에 팔린 석등 ‘제자리로’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으로 아래 받침돌 대신 두 마리의 사자를 앉혀놓았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지만,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위로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조선시대 고달사가 폐사되며 잊혀졌다. 근대에 이르러 다시 확인됐을 때에는 폐사지에 무너진 상태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지정에 앞서 석등의 부재를 마을 주민에게 맡겼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잊혀졌다.

그러다가 부재를 맡았던 마을주민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1957년 서울 종로 동원예식장 대표에게 3만8000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나 이를 모르던 정부는 1958년 석등을 보물로 지정했고 뒤늦게 석등이 팔린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정부는 석등 회수에 나섰고 1959년 경복궁 경회루 옆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석등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과 함께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유산청, 여주시 등 여러 관계기관과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그동안 박물관의 대표적인 야외 전시 유물로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았던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원위치로 이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석등을 최상의 상태로 현지로 보내기 위해 지난 4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분과에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보존처리 및 분석 등의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보존처리 및 분석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 후에 현지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이 여주 고달사지로 완전 이전되면 향후 관리는 여주시가 맡게 된다. 구체적인 이관 시점은 향후 보존처리와 종합보고서 발간 시점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日人 정원 장식품 ‘승탑’ 유랑 종결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보물)’도 본래 절터로 돌아가는 성보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이전을 위한 세부 계획과 이전 예정 지역의 정비 사업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전시돼 있는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은 해체 절차를 거쳐 본래 자리인 거돈사지로 돌아간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거돈사지는 원주 현계산 기슭의 절터로 신라 후기인 9세기에 창간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굴조사를 통해 중문터, 탑, 금당터, 강당터, 승방터, 회랑 등이 확인됐는데, 금당의 규모는 앞면 5칸·옆면 3칸으로 2층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대찰로 성장한 거돈사는 고려 초기 불교계의 중심이었던 법안종의 주요 사찰이었지만, 고려 중기 천태종이 유행하면서 천태종 사찰로 흡수됐다.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은 고려시대 승려 원공 국사 지종(930~1018)의 사리탑이다.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탑비의 건립은 ‘태평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 중인 고달사지 석등, ‘환지본처’ 추진
보존처리 후 고달사지 이관키로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이전 계획
내년 개관 충주국립박물관으로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등 옮겨져
“문화유산 본 자리 있어야 의미”

을축추칠월(太平乙丑秋七月)’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고려 현종 16년(1025)에 해당하므로 이 사리탑도 그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8각 사리탑으로, 모양이 단정하고 아담한 통일신라 탑의 양식을 이어받아 조형의 비례가 좋고 중후한 품격을 풍기며 전체에 흐르는 조각이 장엄해 한층 화려하게 보인다.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다. 1910년대 일본인이 자신의 집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로 무단 반출했고 해방 후인 1948년 성북동 어느 저택에서 발견돼 경복궁으로 이전됐다. 1968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현 위치로 옮겨졌다.

일반적으로 승탑은 탑비와 짝을 이루는데 원공국사탑은 원주 소재 탑비와 100년 가량 떨어져 있는 셈이다. 현재 승탑이 있던 자리에는 국가무형유산 석장 이재순 보유자가 조성한 재현품이 세워져 있다.

원래 자리는 아니지만 문화유산이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내년 개관하는 국립충주박물관에는 국보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과 보물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비’, 보물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등 3점이 이전될 예정이다. 이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보물)’ 등과 같은 ‘현지 이관’이 아닌 ‘임시 이관’ 형식으로 본래 소재 지역이나 인접 국립박물관으로 이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유산 접근 및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지 이관’ 환지본처 선결 요건은

앞서 제자리를 찾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부터 환지본처가 추진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은 모두 공통점이 존재한다. 환지본처를 위한 선결 요건들을 충족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시한 선결 요건은 △출토지 확실 △원위치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관리 △관리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할 것 △전시와 관리의 안전이 담보될 것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춰 원형 그대로 이전할 수 있을 것 △과학적 정밀조사 선행 등 총 5가지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현지 이관 원칙에 대해 “모든 유물이 현지 이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문화유산의 이관 요구에 대해서는 선결 조건을 갖춘 뒤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경우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이 완료되면 원형 그대로 현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천 갈항사지 동·서탑’의 환수를 위해 김천시가 갈항사지 일원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다.

이 같은 문화유산들의 지역 환지본처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15일 발표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은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초지자체가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가 다년도 협약을 통해 이행을 지원한다. 고유한 지역문화자산의 보존·활용과 지역 주도 콘텐츠 육성 역시 주요 과제다. 지역의 기억과 서사를 주민과 함께 기록·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자산을 문화기획과 창작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지역문화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지역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최근 성보의 환지본처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지만 늦게나마 추진돼 다행”이라며 “아직 돌아가지 못한 문화유산들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은 그 유래지와 출처지의 역사, 지역 공동체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밝힌 이 이사장은 “지역문화주권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관련 문화콘텐츠 산업을 촉발하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화유산 반환은 가장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은 제 자리에 있을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된다”면서 “박물관의 전시물로 전락한 문화유산을 각 지역의 ‘대표 유산’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